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 관광 재도약을 위한 업계 지원 및 관광 특구의 관광 거점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시설공단으로 직영 전환된 고척체육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손실 보전 등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 해당사항 없음.
- 세출: 기정예산 2,500억 6백만원 대비 2.5%인 61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2,561억 3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률(%)
합 계	256,135	250,006	6,128	2.5%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1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00억 6백만원의 2.5%에 해당하는 61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10개 사업 66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 4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1개 사업 61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임.

세부내역은

- 여행업계 재도약 사업비 지원(관광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
- 서울ONE+패스Ⅱ 제휴 관광시설 할인 지원(관광재단 출연금) 4억원,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억 8천만원,
- 고척체육센터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예산확보 9억 7천6백만원,
- 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영업손실 보전 7억 4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 8억 8천6백만원

총 10개 사업 66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 잠실종합운동장 공공요금 지출비

총 1건, 4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임.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증액 20억원,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4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증액 2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 1억 3천1백만원 등 **총 28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며,

체육분야에서는 독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증액 13억 2천9백만원, 고척체육센터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예산확보 증액 9억 7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 7억 5천5백만원, 잠실야구장·목동빙상장 영업손실 보전 증액 7억 4천3백만원 등 **총 38억 2백만원이 증액**되고, 잠실종합운동장 공공요금 지출비 4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임.

<부서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기정예산 (A)	조정예산(B)		변경예산안 (A+B)	사업수	
		예산액	증감률		증	감
총 계	250,006	6,128	2.5%	256,135	10	1
관 광	71,792	2,811	3.9%	74,604	4	-
체 육	178,214	3,317	1.9%	181,531	6	1
관광정책과	64,406	2,680	4.2%	67,086	3	-
관광산업과	7,386	131	1.8%	7,518	1	-
체육정책과	100,518	1,330	1.3%	101,848	2	-
체육진흥과	53,830	1,729	3.2%	55,559	2	-
올림픽추진과	8,448	-	-	8,448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418	258	1.7%	15,676	2	1

나. 예산안 검토

(가) 관광분야

□ 서울관광진흥기금 전출금

- 이번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중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10월 5일에 설치된 동 기금의 개요와 2021년도 계정별 지출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음.

< 관광진흥기금 개요 >

서울관광긴급지원
계 정
(사업관리기금)

- 관광업계 지원, 서울관광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
- '21년부터 매년 50억 규모로 사업관리기금을 편성하여 비유자사업 추진

서울관광플라자
계 정
(적립성기금)

-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 4년간('21~'24) 250억원씩 적립
- ⇒ '24년 말 1,000억원 조성하여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등 마련

<관광긴급 지원계정 지출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	비교
합 계	0	2,002	2,002	
서울 관광·MICE업계 긴급 지원(비용자성 사업비)	0	1,900	1,900	
서울시 영세 여행사 긴급 생존자금 지원	0	1,500	1,500	신규
서울형 안심MICE 모델 구축	0	400	400	신규
재무활동	0	92	92	
여유자금 예치금	0	92	92	
행정운영경비	0	10	10	
기금 관리비	0	10	10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지출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	비교
합 계	0	5,086	5,086	
재무활동	0	5,086	5,086	
예탁금	0	5,000	5,000	
예치금		86	86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이 기금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는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지원금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서울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을 편성해 추가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서울 관광·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현황 〉

(1차)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3.~7.)	: 974개사, 48.2억원
(2차) 서울형 MICE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18개사, 15.9억원
(3차)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02개사, 14.8억원
(4차) 서울 관광·MICE(8개업종) 긴급생존자금 지원('21.2.~4.)	: 1,145개, 11.4억원
(5차)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21.4.~진행 중)	: (목표)5,000개, 100억원

- 지난 5차례 사업은 도산 위기에 처한 여행사들에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번 기금 편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중 200개사를 선정해 최대 1천만원씩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용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여행업 붕괴가 관광산업의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¹⁾에서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로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서울 관광산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편성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반 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또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서울시 영세 여행사 긴급 생존 자금 지원으로 편성했던 15억원을 지난 2월 4차 지원사업에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문제임.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장점을 활용해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를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되도록 일반회계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유사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살펴볼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서울ONE+패스Ⅱ카드를 모바일로 발급하여 서울시 내 관광지와 체험관광시설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시민 대상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4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0년 서울ONE+패스는 재단의 고유사업인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에 편성된 사업으로 서울 소재 관광·공연·체험시설 할인을 제공한 제휴 관광시설에 할인율별로 300~500만원의 지원금을 선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주요 추진내용 및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서울ONE+패스(Seoul One+Pass) 주요결과〉

- 실물패스 5만장, 모바일패스 1만장 총 6만장 출시 및 운영
- 서울ONE+패스 제휴시설 대상 정산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 방역물품 제휴시설 91개소 대상 방역물품 지급(밀집도·위험도 높은 9개소 추가지급)
 - 사업자등록증 기준 87개소, 259,000,000 정산금 지급 완료('20. 8. 11.)

구 분	참여시설	비 고
50% 이상 할인율 제공	12개소	500만원 지원
40% 이상 할인율 제공	10개소	400만원 지원
30% 이상 할인율 제공	65개소	300만원 지원
소계	87개소	최종 87개소 295,000,000원 지급완료

※ 지급 제외: 국가기관(국립국악원 1개소), 사업자등록증 중복 사업장(놀이동산, 박물관은 살아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3개소)

- 자체 SNS 및 포털사이트 홍보추진: 약 3,976만 2천회 노출
 - 카카오톡 활용 고객센터 운영 및 관광관련 커뮤니티 홍보 추진 등
- 제휴시설 91개소 대상 방역상태 전수조사 추진: 특이사항 없음
- 서울ONE+패스 제휴시설 대상 온라인 교육 추진: 1회('20. 8. 3.)

-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 시내 107개소 관광지에 무료 및 할인 입장이 가능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고객층인 인바운드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20년도 패스 판매 실적은 전년도 대비 85.7% 감소하였고,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국내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목표를 재설정해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제휴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ONE+패스를 '20년도 후반기에 출시하였음.

-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린 발빠른 대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카드 배포일인 11월보다 크게 앞선 8월, 선정산 방식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향후 지출예산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21년도 사업계획에서 제휴시설 수의 목표를 110개소로 상향조정하고(기존 91개소) 모바일로만 발급한다는 것 외에 지난연도 사업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는 점과,

2020.12.31.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에서 향후 서울ONE+패스의 방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개선점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추경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임.

〈2021년도 서울ONE+패스(Seoul One+Pass) 세부추진 내용〉

모집, 접수	정산기준 마련	방역상태 점검	제휴시설 지원	패스운영
관광시설/ 여행서비스 110개소 모집	→ 할인율에 따른 정산금 기준 마련 자문위 개최	→ 방역전문기관 활용 코로나19 안전 점검	→ 방역물품/ 운영교육 지원	→ ① 패스제작 ② 출시/홍보 ③ 정산금 지원 ④ 모니터링
'21년 6~7월		'21년 7월	'21년 8월	'21.9월~12월

〈2021년도 정산금 지급(안)〉

제휴시설 형태	할인율	선정산금
관광시설	50% 이상	500만원
	40% 이상	400만원
	30% 이상	300만원
공연시설	40% 이상	400만원
체험시설	30% 이상	300만원

- 특히 지급 이후의 사업성과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선정산' 방식의 지원금 정산구조와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시 관광업체들의 모임인 서울시관광협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과 서울랜드, 롯데월드, 남산N타워 등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할인을 제공 중인 대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 없이, 불용예산을 줄이고 수혜업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항공, 호텔, 국제회의 관련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어 관광산업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향후 변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관광진흥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하지만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서 추경으로 제안한 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편성되어 선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산방식을 재차 사용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계획의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 동대문 패션타운 특구 내 신규 도보코스를 개발하고, 송파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목적으로 2억 8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종로·청계(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중구), 동대문패션타운(중구), 이태원(용산구), 잠실(송파구), 강남마이스(강남구) 총 6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은 2013년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사업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내 축제·행사 등의 지원을 통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환대캠페인 전개 및 환대서비스 교육,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으로 환대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본 사업은 동대문특구 내 DDP 중심의 “패션”, “뷰티”를 테마로 패션관광 거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원, 잠실특구 내 주변 역사문화 자원 연계로 송파일대를 역사·문화·예술에 특화된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8천만원, 두 가지 사업으로 편성했음.

도보코스 개발 용역 추진	2021.07~2021.12	200,000	동대문 패션타운 특구를 중심으로 도보코스 개발
송파일대 관광 활성화 컨설팅 용역	2021.07~2021.12	80,000	송파일대 관광 활성화 컨설팅 용역 추진

- 이 중 동대문특구 내 사업은 동대문패션타운에 신규 도보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있어 기존 서울시·자치구 도보관광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관광정책과에서 작성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본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내역		소요예산 (천원)
지역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지역 관광코스 발굴 방향 및 코스(안) 마련 컨설팅, 답사, 코스 선정, 콘텐츠 발굴 등 - 3개 코스 × 25,000천원 = 75,000천원 - 5개 콘텐츠 × 5,000천원 = 25,000천원	100,000
	국내·외 여행자 대상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 3개 코스 × 30,000천원 = 90,000천원	90,000
	관광지도 제작·배포(4개 국어×5천부)	10,000
송파일대 관광거점화 용역	송파일대 관광자원 발굴, 관광자원 간 연계 등 '송파 역사문화 관광거점화 계획' 수립	80,000
합계		280,000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도보관광코스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동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테마별 관광코스와의 중복될 가능성이 큰 바,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자치구와 연계함으로써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 〈서울시,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대책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준비 대책도 병행〉(2020.12.31.발행)에서 향후 서울시 관광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지자체와의 연계·협력할 것을 제언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자치구가 개발해 놓은 도보코스와의 연계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 관광지 내 감염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관광시설별 적정 수용력을 제시하는 지침의 수립 ▲ IT강국의

이점을 활용한 관광객 편의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바,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잠실특구 내 사업은 송파일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해 ‘송파 역사·문화 관광 거점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향후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종료시점에 맞춰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 등 역사문화유적을 이용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반환

- 202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금 반환을 위해 1억 3천1백 만원을 증액함.

(나) 체육분야

- 2021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21년부터 운영방식이 전환된 고척스카이돔 내 고척체육센터 운영예산과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일정이 앞당겨지며('22.2.→'21.12.) 필요한 공사비 잔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9%인 33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된 1,815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됨.

□ 고척스카이돔 운영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위탁운영(2016.4.1.~2020.12.31.) 해오던 고척스카이돔 내 고척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적자가 지속되자 현 수익형 민간위탁 방식에서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을 요구하였고, 불가한 경우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함('20.10.12).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m ²)		
		전용면적	공용면적	총 면적
수영장	B2~B1	1,436.27	634.67	2,070.94
헬스장	1층	775.14	465.02	1,240.16

<운영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이용자	수입(A)	지출(B)	손익(A-B)
2016(6월~12월)	15,794	663	733	△70
2017	29,448	1,291	1,410	△119
2018	31,660	1,391	1,506	△114
2019	33,225	1,470	1,639	△169
2020	6,559	240	855	△615

- 위탁운영한 4년 7개월동안 약 10억 8천7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및 제한운영으로 이용자 및 수입·지출이 큰 규모로 감소하여 서울시는 '20년도 추경을 통해 5억 9천1백만원 손실을 보전한 바 있음.
- 시설공단과 서울시체육회간 위·수탁방식을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할 경우, 재위탁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서울시체육회로 별도의 절차없이 위·수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울시체육회가 아닌 새로운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수일이 소요되므로 관리의 일원화, 효율성, 시립체육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운영 대안>

구 분	장 점	단 점
<1안> 서울시설공단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절차 및 공백 없이 운영 가능 ·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시 → 서울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직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 -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운영경험 부족
<2안> 구로구시설공단 제3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 생활체육시설 운영 경험(10년 이상) 多 ·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등 - 생활체육시설 운영 조직인력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동의절차 등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공백 발생 · 관리·감독의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 고척체육센터 : 사·시설공단 → 구로구시설공단 - 돛장 등 기타시설 : 사·시설공단 · 구로구민 위주의 시설운영 우려

- '21년부터 시설공단에서 시설 인수 및 내부 수리 등을 거쳐 임시로 운영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고척돔경기장 '경기장 위탁사업비'와 '돔경기장 세외수입'을 먼저 활용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인건비 6억 6천 6백만원, 운영비 9천만원, 공공요금 2억 2천2백만원 등 총 9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시설공단 직영에 따라 시설 운영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이나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립체육시설은 자체수입(입장료,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시 예산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풋살경기장, 구의야구공원)과 목동(주경기장, 야구장, 신월야구공원) 체육시설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을 민간대행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이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위임기관 권한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 대행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하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개인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분산되어있는 각 체육시설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특히 계속된 적자 누적,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견인 하는 시립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성동구 독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 정부는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SOC사업으로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계획('19)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는 정부의 생활 SOC사업 공모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서울시 지원기준으로 자치구 다 목적체육센터 투자계획(2020년~2023년)을 수립함.

-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동구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금호근린 공원체육관에 이어 3체육센터로 독섬유수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19.11.)하고 공유재산심의('20.7.) 등 사전절차를 이행함.

동 시설은 총 사업비 297억원 중 일부 확보된 예산 91억원으로 1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2차년도 계약 체결을 위한 나머지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함.

동 사업은 6월 현재 공정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일정의 지연, 우천, 폭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2년 12월에서 2월로 준공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계획된 '22년도 본예산이 아닌 '21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을 인정

하기 어려움. 다만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위하여 2차년도 예산 확보에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코로나19에 따른 '21년 3~5월(3개월) 기간 중 잠실야구장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4억 9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의 행사참석 예상인원 감소로 행사청소용역 비용과 공공요금에 감소하여 4억 8천5백을 감액 편성하고자 함.

잠실야구장은 (주)LG스포츠와 (주)두산베어스가 관리·운영사무 공동 수탁자로 협약에 따라 위탁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위탁사용료)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탁자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연도별 위탁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는 위탁사용료의 10%로 한다.

구 분	위탁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2020년	금2,981,657,000원(금이십구억팔천일백육십오만칠천원)
2021년	금3,127,084,000원(금삼십일억이천칠백팔십사천원)
2022년	금3,282,757,000원(금삼십이억팔천이백칠십오만칠천원)

잠실야구장 광고권 사용료는 서울시와 연고구단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127억 4천6백만원('20. 1. 1. ~ '22. 12. 31.)이 세입 처리되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잠실야구장 상업광고 산출내역 >

- ▶ **잠실야구장 상업광고 사용료 : 12,746백만원**
- ▶ 감정평가에 따른 기본 사용료 결정 : 8,205백만원
- ▶ 제3자(한국경제) 상업광고 사용·수익에 따른 추가수익금(9,082백만원) 분배(50:50)
(市 : 4,541백만원, LG.두산 : 4,541백만원)
- ※ 낙찰금액 17,287백만원-감평가 8,205백만원= 추가수익금 9,082백만원 / 2 = 4,541백만원

< 그간 잠실야구장 광고권 계약 현황 >

구 분		'00 ~ '11년 (제1기~제4기)	'12~'13년(제5기)	'14~'16년(제6기)	'17~'19년(제7기)
계약방법		수의계약 (연고구단)	공개경쟁입찰 (전흥)	공개경쟁입찰 (스타에드컴)	연고구단 (한국경제신문)
광 고 사 용 료	산정방법	원가계산	원가계산	원가계산	감정평가
	사용료 (예정가격)	1,500 ~ 2,410백만원	7,220백만 원 (3,061백만원)	10,350백만원 (5,050백만원)	11,008백만원 (7,640백만원)

그러나 '20년도 무관중 경기 및 관객 제한입장(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 수용인원의 10%만 입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야구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도 광고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금년 사용료에서 일부(20억원 중 서울시 부담 14억 7천4백만원)를 상계 처리하였으며,

광고사용료 감면 뿐 아니라 '2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손실보전을 7억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4억 9천9백만원에 손실을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는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주)LG스포츠와 (주)두산베어스와 같은 대형 구단에 대한 지원인 바, 이들 두 구단이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자체 광고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구단의 손실비용까지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목동야구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동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19.8.~'22.7.) 목동실내 빙상장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2억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도(제295회 정례회)에도 2억 7천4백만원을 보전하였음.

'87년 건립된 목동실내 빙상장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99년까지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99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단위 수익계약으로 위탁운영하였으며,

'17년도 서울시체육회가 목동실내 빙상장 운영을 입찰 받은 이후, 입찰에 함께 경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소장을 목동빙상장 소장으로 채용하였고 운영과정에서 소장 채용비리, 소장의 부적절한 언행, 예산회계처리 부적정, 시설 제3자전대 등 부정적인 이슈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18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받았고 '19년 8월부터 현 위탁업체가 새롭게 선정되어 운영 중임.

- 현 위탁업체는 정상운영 기간('19년)대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수입이 '20년도 38%, '21년도 51%에 그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입·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서울시체육회 수탁)		2019년(8~12월, 와이키키 수탁)		2020년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수 입 (서울시지원금 포함)	지 출
현 황	4,100,003	3,453,683	1,417,989	1,246,595	2,166,965	2,388,762

< 정상운영 기간과 코로나19 기간 중 수입 별도 비교 >

정상 운영 기간	코로나19 기간		감소현황
'19년 1월~6월	'20년 1월~6월	'21년 1월~6월	- 정상운영 기간('19년) 대비 수입이 '20년 38%, '21년 51% 수준에 불가 * '21년 1월~6월은 일부개방 / '20년은 1월~2월 정상개방, 2월말~4월 전면 폐쇄, 5월~6월 일부개방
1,438,466천원	536,945천원	733,758천원	

목동 실내빙상장과 같은 자립형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수익창출형 휴관 또는 폐쇄 시 지원관련(민간위탁 관리지침 참조)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체육정책과의 '19년 편성된 국제대회 지자체 국내개최 지원 사업 반환을 위해 4천만원, '19년도 시구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3억 1천4백만원,

체육진흥과의 '20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반환 3억 9천2백만원, '18년 국학기공 사업 반환 7백만원으로

총 7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됨.

다. 종합검토의견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에 따라 관광산업의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편성된 것으로 그 시기의 적절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그러나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단편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계획 등은 단기적 성과만을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므로 추경 이후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플랜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산업은 물론 민간 체육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이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방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임에도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미약하여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아쉬운 현실이며

정부의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체육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미집행된 체육관련 예산은 영세 체육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체육분야 추경예산은 시설공단, (주)LG스포츠와 (주)두산베어스 등의 영업손실 보전 예산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체육시설 건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긴급히 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